

큰스님 수행현황

# “어디서 무엇을 하든

## 다시 푸는 경서

### 법구경

#### 사문품(沙門品) ③

當學入空 당학입공  
靜居止意 정거지의  
樂獨屏處 낙독병처  
一心觀法 일심관법

마땅히 공에 들기를 배워  
조용히 머물며 뜻을 쉬고  
홀로 그윽하고 고요한 것 즐겨서  
한마음으로 진리를 비취라

常制五陰 상제오음  
伏意如水 복의여수  
清淨和悅 청정화열  
爲甘露味 위감로미

항상 오음을 억제하고  
뜻을 함박받아 고요한 물 같이하면  
마음이 맑고 깨끗하여 고르고 즐겁  
기가

마치 단 이슬 맛 같으리라

不受所有 불수소유  
爲觀比丘 위혜비구

### “삶을 깨끗이하고 좋은 스승·벗 구하고 몸과 입 쉬며 번뇌심 이기면 편안하리”

攝根知足 섭근지족  
戒律悉持 계율실지

남의 것 받지 않으면  
지혜로운 비구라 한다  
욕구를 다잡아 만족할 줄 알고  
계율을 다 수지하여라

生當行淨 생당행정  
求善朋友 구선사우  
智者成人 지자성인  
度苦致喜 도고치희

삶을 항상 깨끗이 하고  
좋은 스승과 벗을 구하라  
지혜로운 이 그렇게 닦아  
괴로움 벗어나 기쁨 이루어라

如佛華嚴 여위사화  
熱如自煎 열여자타  
釋疑寤寐 석음노치  
生死自解 생사자해

마치 뒤사화 꽃이  
익으면 스스로 떨어지듯이  
음욕 성냄 어리석음 풀리면  
생사관문도 절로 풀려나

止身止言 지신지언  
心守安默 심수안묵  
比丘棄世 비구기세  
是爲安寂 시위수적

몸이 쉬고 입이 쉬며  
마음이 깊고 고요하여  
비구가 세속을 버리면  
이는 적멸을 이룬 것이다

當自勸身 당자촉신  
內與心爭 내어심쟁  
護身念論 호신념체  
比丘雅安 비구유안

마땅히 스스로 몸을 경계하고  
안으로는 번뇌심 이겨내어  
몸을 지키고 진리를 생각하면  
이런 비구는 오로지 편안하리

我自爲我 아자위아  
計無有我 계무유아  
故當勸我 고당손아  
調乃爲賢 조내위현

나는 스스로 내로다 하지만

나는 있지 않다고 헤아려야 한다  
그러므로 마땅히 나를 버려  
조심하면 어진 이가 된다

善在佛敎 회재불교  
可以多處 가이다회  
至到寂寞 지도적막  
行藏永安 행영영안

기쁨이 부처님 가르침에 있으면  
그 기쁨이 많다 할 수 있으니  
적멸에 이르게 되면  
작이 있는 행은 사라져 영원히 평안  
하다

儻有少行 당유소행  
應佛敎戒 응불교계  
此照世間 차조세간  
如日無礙 여일무애

혹 조그마한 행이라 할지라도  
부처님의 가르침과 계율에 맞으면  
이는 세간을 비추는 빛이다  
마치 구름없는 태양이 빛나는 것처럼

龍眼

## 탄성스님 (공림사 주지)

“중이 글 공부하면 신세 망치는 줄 알  
아라.” 은사이신 금오스님께서는 제자들  
에게 올바른 수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  
로지 참선수행으로 용맹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은 첫째도  
참선, 둘째도 참선, 셋째도 참선이었습니  
다. 진정한 수행자란 스스로 참구하고 도  
를 터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가르침이  
있지요. 은사스님은 제자들이 글 공부나  
경공부를 하는 것을 보면 그때마다 호통  
을 치셨습니다. 출가자가 된 것은 확실해  
오하여 견성성불하는 것인데, 설익은  
글 공부, 설익은 경 공부로는 확실대로할  
수 없다는 게 스님의 신념이요, 철칙이었  
던 것 같습니다.

한번은 스님이 “참선만 해야 하는 까닭  
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쭙었지요.

“여기 한 사람이 방안에 들어 앉아 중  
이 위에다 금강산 이름을 천 번 쓰고, 천  
번을 외웠다고 치자. 그 사람이 금강산  
이름을 천 번 쓰고 천 번 외웠다고 한들,  
금강산에 단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다고  
하면 과연 그 사람이 금강산을 잘 안다  
고 할 수 있겠나. 상업학교를 삼년 다  
닌 사람과 시장 바닥에서 장사를 삼년  
해 본 사람과 어느쪽이 장사에 대해서  
더 알겠나. 글자나 경구에 얽매면 그  
것은 지식을 행하는 일에 불과한 것이다.  
금강산 이름을 천 번 넘게 쓰고, 금강산  
의 높낮이 면적은 얼마이다 라는 것을  
달달 외운다 해도 한 번도 금강산에 가  
보지 아니하면 그것은 쓸데없는 지식만  
보일 뿐 정작 금강산이 어떠한지는  
알지 못하는 것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  
다. 나도 수좌들이 비슷한 질문을 해오거  
나 법문할 때 금오스님이 해 주신 말씀  
을 예를 들어 설명해주곤 합니다. 그러면  
다들 쉽게 이해하더라고요.

나는 8·15해방 전인 1944년 어머니를  
따라 계동산 신원사에 갔다가 젊은 스님  
들이 열심히 (초발심)를 공부하는  
것을 보고 출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처럼 출가를 하게 된 동기가 경전공부를  
하기 위해서였는데 은사스님께서는 경전  
공부는 고사하고 (초발심)도 공부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오직 참선수행만을  
해야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참선을 하여 마음을 깨끗이 생사해탈  
을 한다”고 주장하신 스님을 모시고 살  
았으니 무슨 글 공부의 인연을 만났겠습  
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경을 경으로  
안보고 경을 글로 보면 안된다”는 의  
미였던 것 같습니다. 경을 글로 보면 알  
음알이를 토대로 언어를 희롱하고 마음  
을 가식하여 진리를 흐리게 하는 것입니

다. 즉 배를 타고 강을 건너면 배를 버려  
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금오스님  
께서는 경전의 문자들이나 얽매이고  
뜻에만 집착해 이상한 짓은 수행에  
이유된 도움이 안되니 아예 문자를 가  
까이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출가한 그해 10월부터 금오스님을 모  
시며 행자생활을 시작해 이듬해 3월 사  
미계를 받았습니다. ‘참선만이 가장 수승  
한 법문이다’라고 강조하시며 용맹정진  
하시는 금오스님을 모시며 선방 수좌들  
의 뒷바라지를 했으니 나 역시 자연스럽  
게 참선수행에 몰두했지요.

무엇보다 금오스님의 투철한 수행모습  
과 법문은 많은 수좌들의 사표가 됐습니  
다. 은사스님의 수행은 곧 제자들에게는  
말없는 법문인 셈이지요. 젊은 수좌들에  
게는 호랑이처럼 통하셔지만 진짜  
호랑이 같이 무서워 보일 때는 용맹정진  
하실 때였습니다. 며칠씩 끄덕없이 밤을

- 1928년 충남 신도인 생
- 1944년 갑사에서 금오스님 은사로 득도
- 1955년 범어사에서 고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 1972년 법주사 주지
- 1980년 조계종 수승대행위원장
- 1984년 조계종 개혁회의 총무위원장 역임
- 1997년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現)
- 現 괴산 공림사에 주석



### “금강산 이름 천번쓰고 천번 외워도 가본일 없으면 안다고 할 수 없고 법문 많이 듣고 경전 많이 읽어도 스스로 행하지 않으면 이익 없어요”

새워가며 용맹정진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평소 강조하신 “수마를  
이기는 것도 큰 수행”이라는 말을 실천  
에 옮기셨습니다.

화엄사에 있을 때였습니다. 금오스님  
께서는 일년에 한 두번씩은 꼭 모든 대중  
들에게 탁발을 하도록 했습니다. 부처님  
게서도 깨니때만 되면 일곱집을 도는 락  
발을 하며 중생들과 인연을 맺었기 때문  
에 수좌들도 그 의미를 몸으로 체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면에는 수좌

들에게 공양의 의미를 제대로 배우게 하  
기 위한 의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탁  
발을 하면 무엇보다 하심(下心)의 도를  
익히게 될 뿐만 아니라 보시의 청정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후 나는 만행할 때 때  
면 가끔씩 탁발을 하곤 했습니다. 스님들  
의 열불보시와 재가인의 재물보시가 동  
시에 이루어지는 탁발은 선방에서 정진  
하는 수좌들에게 약간의 감초처럼 반드  
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좌들이 참선수행을 하려면 반드시  
화두를 받게 되지요. 그런데 간혹 화두를  
일러주는 사람은 바로 일러줬는데 화두를  
받는 사람이 잘못 받아서 헛수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선을 할 때는 만  
드시 화두결핵을 잡아야 합니다. ‘이렇  
고’ 라는 화두를 결핵했다고 가정합니다.  
(욕조단정에 보면 욕조스님이 법문을  
하려고 법당에 앉아서 말씀하시기를 “내  
게 한 줄간이 있으니 위로는 많은 것을  
지탱하고 아래로는 땅을 버텨주며, 맑은  
데 비유하면 백천일보다 더 맑고 어두  
운데 비유하면 천룡보다 더 어둡다. 큰  
데다 비유하면 칠지러공을 다 삼켜도 차  
지 아니하고 작는데 비유하면 티끌보다  
더 작아서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은  
아름도 없고 형상도 없다. 대중은 이것을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모든 대  
중들이 다 묵묵부답하고 있는데 신해선  
사가 일어나서 질문 하고 답하기를 “제  
불자본원신해각성(諸佛知本原解脫成)”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욕조스님께서  
“내가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다고 했는

“양력생활풍수에 적용하면, 악운을 예방하고 행운을 불러들이는”

## 12품 팔상탑주(八相塔呪)의 비법 과 그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최천택사

- ◎팔상탑주(八相塔呪)책자내용의 요점설명
- 1)음택풍수측면 :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후손에게 발복이 일어나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해주는 방법수륙
  - 2)양택풍수측면 :
    - ①사업이 잘 안될때 이를 개선시키는 방법
    - ②대학입시나 고시등 각종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할 때
    - ③노치너나 노총각이 결혼을 빨리하고자 원할때
    - ④부부간에 불화가 심할경우 부부금실을 좋게 해 주는 방법
    - ⑤자녀가 없어 아이갓기를 간절히 원할 때
    - ⑥불치병등을 완치시키고자할 때 풍수적인 조치방법
    - ⑦부동산등을 빨리 처분하기를 원할때
    - ⑧식당, 레스토랑, 다방, 술집, 가게, 상점, 슈퍼마켓, 약국, 여관, 호텔, 사우나, 목욕탕, 학원등 영업장소에 고객들이 증가하고 장사가 잘 되기를 원할 때

**12품팔상탑주를 적용시켜 풍수적으로  
그 개선방법과 해결책 제시!!**

◎본책자는 현재 전국에서 사ாம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들과 신심깊은 불자들에게 연락주시는대로 1권씩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스님들께서는 어려우시더라도 가능한 시간을 내주시어 본회로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가지로 스님께 도움되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자 하오며 실물을 직접보시고 스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앙과 재난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팔상탑주(八相塔呪)는 12품의 종류와 방위를 판독하는 나침반으로 구성  
이 12품 팔상탑주 중에서 불가님들께서는 다음의설명드리는 2종류의 팔상탑주를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적용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팔상탑주는 이 두품을 먼저 적용하고나서 시간을 두고 경제적인 부담도 고려하시어 단계적으로 적용방법등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품만 먼저 적용하셔도 자신의 약한 운세가 변화되고 강해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1) 대문용 팔상탑주를 대문앞에 부착해 주십시오.

12품 팔상탑주 중에서 누구나 최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은 대문용 팔상탑주를 제일 먼저 부착해 놓는 일이 풍수적으로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대문은 집에 들어오고, 나가는 기(氣)의 출입구입니다. 일단은 대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재앙과 불행과 나쁜 사기나 악운을 못들어오게 하고, 상서로운 기만 흡입되도록 풍수적으로 먼저 조치를 해주고 다른 처방을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특히, 앞집대문과 마주보고 있는 대문은 풍수상으로 적상방이라 하여 어느정지든 기가 약해졌을때 집안의 생기를 앞집에 모두 빼앗겨 잡자기 한 집은 망하게 되거나 집안에 점점 어려운 일만 생깁니다. 대문용 팔상탑주는 그자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불자의 집’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가 생활풍수원리에 맞도록 조성되어 있어 강력하고 좋은 기(氣)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대문앞에 부착하면 일단은 대문을 통하여 집안에 생기가 흡입되고 모여들며 이 운기가 앞집이나 외부로 빠져나가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작용하며, 그시점부터 외부의 나쁜 사기를 완전히 분산시키고 제압하여 집안의 상서로운 기(氣)만을 들어오게 함으로써 출입자에게 강한 운(運)을 제공해 줍니다. 즉 운세가 약하거나 기우는 집안이 이로 인해 다시 운세가 강해지는 운맛이 역할을 시작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차량 및 목걸이용 팔상탑주를 차안에 걸거나 몸에 지니고 다니십시오

각 집마다 차량이 없는 집이 거의 없을 정도의 현실에서 차량사고에 대한 불안감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잠재의식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사업번창도 좋고 가정의 번영도 중요하지만 차량사고로 인하여 불행한 일이 발생한다면 아무런 의의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각 가정마다 차량은 필수품이 되어 태어 났을때도 놓을 수 없는 실정에서 차량의 안전운행은 무엇보다 우선적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량용 팔상탑주는 차안에 걸기 걸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풍수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도록 조성된 차량용 팔상탑주는 앞면에 총괄팔상탑주, 뒷면에는 팔방만다라를 새겨넣어 차안에 걸게 되면 차량 내부 전체에 강력한 우주에너지로 휘감아싸고 발생시켜 차안에 생기가 순간에 채우고 그로인해 운전자나 탑승자의 운기를 강하게 향상시켜 주므로써, 외부로부터의 사고방생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여주고 예견해주는 작용을 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시키고 차량자체도 생기가 펴어나와 돌발적인 사고가 저절로 피해하도록 조절해 줍니다.

● 차량이 없는 분이나 혼자서 운전하시고 다니시는 분은 목에 걸거나 호주머니등에 넣고 다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목에 지니고 다니면 몸전체에 생기가 흡입되어 자신에게 미치는 재난과 질병과 불행이 차단되고 운기가 펼쳐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계약체결이나 시험보러갈때, 관제가 있거나 살개가 온 사람은 꼭 목에 지니고 다니십시오. 특히 사업하시는 분이나 건강이 안 좋은 분, 간절히 소원이 있는 분은 필히 지니고 다니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팔상탑주란?

“사람에게는 인상(人相), 관상(觀相)이 있고 집에는 가상(家相)이 있다 이 가상(家相)안의 여덟방위에는 주의의 관에서 말하는 경상(古相)인 관상(八相)이 존재하고 있으며 관상(八相)은 어릴때의 인생사(人生事) (1)경운 (2)명성 (3)부 (4)가정 (5)지식 (6)진로 (7)조력 (8)자식은 뜻한다. 이 8방위의 방위를 각방위별로 크게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교정수단으로서 관개의 관각형안에 음양의 불탑다라니 신주(神呪)와 오행상의 길(吉)한 색상과 상징물, 숫자, 주술(呪術)등을 도입하여 조성한결과 이곳에서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위력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음하여 팔상탑주(八相塔呪)라 하였다.

### 3) 거실·사무실·상점 등의 중앙에 걸어두는 총괄 팔상탑주

- 1)적용방법 및 효능 등 자세한 설명은 책자 참조
- 2)소재 : 특수 주물금속위에 순도 99.9% 순금으로 도금
- 3)규격 : 30cm×30cm
- 4)수리하고 아름다운 외관은 풍수적으로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지만 불가님들 집안의 고집스러운 장식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의정특허등록 : 제21126호

### 4) 8방위 영역발전을 성취시켜주는 방위별 팔상탑주

동 서 남 북 동남 동북 서남 서북

### ◎ 팔상탑주(八相塔呪)의 효험력

강한 기(氣)의 생성과 균형, 팔괘와 음양의 조화, 심지어 오행상의 상생을 조화시킨 양력 생활풍수원리와 불탑신주(佛塔神呪)의 위력이 합일(合一)되어 조성된 12품의 팔상탑주(八相塔呪)는 가옥이나 사무실, 가게 등에 적용하는 순간부터 그곳의 운기(運氣)를 최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운세를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강한 운(運)의 소유자로 변화시킨다. 즉, 12품 팔상탑주(八相塔呪)의 비법스님과 불가사의한 효험력은 적용되는 순간부터 거주인들에게 미치는 악운(惡運)을 예방시키고, 행운(幸運)을 가져오기 시작하며 결연·제정·학업성취·대인관계 등에서 유익하게 작용하도록하고 직업면에서도 운(運)이 열리고 자손이 번성하고 명성을 얻게 하며 가족이 화목하게 되고 많은 부(富)를 쌓게 하여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